

(주)카네비컴

회 사 소 개



(주)카네비컴은 자율주행차의 핵심 요소 기술인 V2X 통신 단말기, 라이다 (LiDAR) 센서 및 통합제어시스템(DCU)의 국산화 및 상용화에 앞장서는 자동차 전장부품 개발 기업이다.

TTA 표준화위원회 활동 계획

(주)카네비컴은 V2X 분야의 국책과제 수행을 통해 북미 표준(IEEE 802.11p, 1609.x)과 유럽 표준(ETSI ITS-G5)을 충족하는 단말기를 개발하고 있다. 셀룰러 기반의 C-V2X 표준을 충족하는 단말기도 개발하여, 애프터마켓에서 장착과 운용이 가능한 차량용 하이브리드 V2X 통신 단말기 시제품 개발을 완료했으며, 노변 기지국까지 개발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또한 개발된 단말기를 국내 모 자동차 기업의 해외 생산 공장의 자율주행 차량에 V2X 통신 기술을 적용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V2X 관련 다양한 국책과제 수행과 실적용 사례를 통한 노하우를 현실성 및 실효성 있는 V2X 표준에 반영하기 위해, V2X 통신 관련 표준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사업화 계획

(주)카네비컴은 자율주행차의 귀에 해당하는 V2X 통신 단말기, 눈에 비유되는 라이다 센서, 판단을 위한 머리에 해당하는 DCU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18년 산업용 라이다를 국내 최초 양산했으며, 최근 범용으로 사용 가능한 2채널 라이다 VL-R2의 개발을 마치고 자체 생산 라인을 통한 양산에 들어갔다. V2X 통신, 라이다, DCU 기술의 융합을 통해, 자동차 시장에 앞서 AGV, AMR 같은 소형 모빌리티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미래 기술에 대한 관심과 R&D 투자를 통해 자율주행차, 무인 선박, 도로교통 시스템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끊임없이 발전을 이루며 성장하는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의 도약을 모색하는 중이다. 